

SK 텔레콤, 2017 년 연간 실적 발표

- 매출 17 조 5,200 억원, 영업이익 1 조 5,366 억원, 순이익 2 조 6,576 억원
- 전년 대비 매출 2.5% 증가... 미디어 · IoT 등 New ICT 사업 성장
- 전년 대비 영업이익 0.1% 증가... 11 번가 등 자회사 수익성 개선 영향
- “5G 조기 상용화 추진과 New ICT 영역의 성과 창출 가속화”

[2018.02.05] ※ 모든 경영실적 수치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SK 텔레콤(사장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 년 연간 매출 17 조 5,200 억원, 영업이익 1 조 5,366 억원, 순이익 2 조 6,576 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5 일 밝혔다.

매출은 미디어 · IoT 등 New ICT 기반 신규사업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SK 텔레콤은 지난 2014 년 이후 3 년 만에 매출 턴어라운드(Turn around)에 성공했다.

영업이익은 미디어 사업 성장과 11 번가 수익성 개선 영향으로 0.1% 증가했다. 순이익은 SK 하이닉스의 지속적인 실적 호조에 따른 지분법 이익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1% 늘었다.

SK 텔레콤은 2017 년 이동통신사업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미디어 · IoT · 커머스 · 인공지능 등 New ICT 영역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이동통신사업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수익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LTE 가입자 확대 및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견조세를 유지했다.

2017 년 말 기준 SK 텔레콤 전체 가입자는 3,020 만명을 기록하며, 3,000 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LTE 가입자는 지난해 말 대비 179 만명 증가한 2,287 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7%를 차지했다. 또한, LTE 가입자 기준 1 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전년 대비 0.8GB 가 늘어난 6.0GB 를 기록했다.

미디어 · IoT 등 New ICT 사업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SK 브로드밴드는 기가인터넷 · IPTV 가입자 확대 및 VoD 매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3 조

501 억원의 연간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IoT 솔루션 매출 등을 포함한 SK 텔레콤 별도 기타 수익도 전년 대비 10.8% 늘어난 9,787 억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최초로 출시하며 국내 시장을 개척한 SK 텔레콤은 서비스 영역 · 콘텐츠 · 이용자를 동시에 확대하는 'AI 선순환 전략'으로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누구' 월간 실 사용자수(Monthly Active User)는 지난해 8 월 11 만 명에서 12 월에는 211 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SK 텔레콤은 올 한해 New ICT 영역에서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고, 5G 경쟁력 확보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SK 텔레콤은 5G 조기 상용화는 물론, 오프라인 세상이 ICT 化 되는 5G 시대의 특성을 감안해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미 SK 텔레콤은 지난 1 월 역대 최대 규모의 '5G 전사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SK 텔레콤은 ▲미디어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홈서비스 확대와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IoT 영역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자사의 역량을 접목해 신규 BM 을 발굴하는 등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K 텔레콤은 인공지능 영역에서 음악과 커머스 등 생태계를 더욱 확대해 사용자 기반을 넓히고, 성능을 보다 고도화 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SK 텔레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개개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는 상품 · 서비스 출시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가치 혁신과 신뢰 증진을 통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K 텔레콤 유영상 Corporate 센터장은 "지난해 어려운 이동통신사업 환경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New ICT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기치 아래 신성장사업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역시 경영 환경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쟁의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접근으로 New ICT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